

불자 세상보기

CEO 수퍼 갑질에 멍든 상아탑의 비애



무상법현 스님
대교종 열린선원원장
KCAPP종교단체회원장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꼭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에만 목표를 두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인도적인 차원은 이념 따지지 말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인도적이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 인도적이거나, 개발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 생애를 보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왜 그럴까? 그 큰 이유는 개념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음(無明) 즉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無分別)에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에 떠있는 메리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것도 요즘 세간의 화제이다. 곳곳에서 특히 대학에서 인문학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인문학이 대세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보고 정작 인문학자들은 사기나 쇼라고 혹평한다. 더구나 기업이 대학의 운영주체가 된 몇 개의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이번엔 이사장이나 전 총장이 문제가 된 중앙대학교의 경우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대학에서는 경제중심의 사고로 인문학은 안중에도 없고 무한경쟁의 기업마인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빈번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적하는 문제는 맞지만 현상분석의 틀이나 개념 언어들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경제(經濟)라는 말은 경제제민(經世濟民)이라는 말이 원어이다. 경제를 목 먹이 말라. 정견(正見)에 입각한 중도(中道)는 바른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고 시작과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옳게 된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과학, 학문이라는 말이다. 당연히 경제제민의 경제도 중요

한 요소이다. 그러기에 바르게 진행되어야 대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견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오해하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될 수 없으면 적은 상태에서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만족하는, 아니 대다수가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게도 그런 절차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보직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매끄럽지 못한 언어들이 드러나서 공직을 사퇴한 박용성 전 이사장 문제가 그 꼭지점에 있는 것이다. 아다시피 말은 생각(마음)의 표출이며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결과의 업(業)이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슈퍼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은 연사는 떠올리게 싫다. 그래서 공직을 사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무책임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당국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개념에서 비롯된 경제우위의 비인문학적 사고로 진행된 대학개혁이라는 미명

의 학문도양 분쇄의 과정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새 집행부의 화두(話頭)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일터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요,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말 바람직한 인문학은 과학기술자나 예술가나 체육, 행정가, 정치가 등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와 함께 하는 이들의 평화와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학문이 바탕이 되어서 졸업생들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바르고 좋게 살도록 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상아탑이 되게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가치는 밝음을 밝히는 데(明明德)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성원 전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느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지도부에 있는 이들이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남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피는데 시간을 보내고 슬기로운 이는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피는데 애를 쓴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약(良藥)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韓불교가 네팔의 눈물을 닦아주자

자연 앞에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보고 여실히 느꼈다. 지난 4월25일 네팔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리히터규모 7.8의 강진으로 4월 28 현재 4천여 명이 사망했다.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구조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외곽 지역으로 구조 및 수색 작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발생 3일 후인 4월 27일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나빈 법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태어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 본다. 아비규환 그 자체다. 언제까지 모를 여진에 집이 무너질까 공원이야 골프장 등에 간이 천막을 치고 잔다”고 울먹였다. 네팔한인회장으로 활동 중인 영봉 스님도 본지 기자를 만나 오는 6월부터 네팔의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럴 경우 전염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문화재 파괴도 심각하다고 한다. 나빈 법사에 따르면 네팔의 제1성지인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제 2성지인 스와얌부나트 사원과 제 3성지인 보르나트 사원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라고 전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유적지 복원에 최소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가 네팔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 사회도 이에 동참하고 있고, 불교는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조계종은 4월 27일 긴급 구호단 선발대를 현지로 급파했고 20만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와 더프라이스 등도 현지 구호를 시작하거나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네팔은 부처님 탄생 성지가 있는 곳으로 불교에게는 중요한 곳이다. 아픔을 보듬고 돌보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네팔인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동체대비행에 전국민과 불자들이 나서길 기원한다.

조계종 사찰 재정 공개 환영한다

조계종이 오는 7월부터 지역·특별부담금·4등급(예산 30억원 이상)사찰에 대한 재정공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서 발표한 계획안은 지난 3월 100인 대중공사에 논의됐던 사안들이 적지 않게 담겨 있었다. 이날 발표된 재정 공개 추진 계획은 △지역 사찰, 특별부담금 사찰, 예산 30억 원 이상인 사찰 오는 7월부터 재정 공개 △예산 편성 지침 심사 시 주요 지출항목 기준 마련 △문화재 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마련 △간소화된 재무 프로그램 개발 △예결산서 미제출 사찰 제재 등이다. 발표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사찰 등에 대한 재정 공개이다. 대상 사찰은 약 50여 곳으로 조계종 전체 사찰 예산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조계종은 6월 중에 대상 사찰 회의를 갖고 재정 공개와 형식,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7월 중 재정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된다. 또한 재정

공개 대상 사찰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확대도 추진된다. 그간 카드 결제 수수료와 결산 시제가 맞지 않아 시스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적인 중무행정 지도를 통해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찰이 전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봉은사 등 대형 사찰부터 작은 포교당까지 자신의 살림살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어왔다. 예결산서를 통한 정보 공개의 경우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곳 중 48곳(59%)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절반이 되는 사찰들이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에 대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많다. 사회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정 투명화는 무소유를 가치로 삼아가는 출가 수행자가 지켜나가야 하는 덕목이다. 조계종이 발표한 재정 공개가 허언이 아닌 시대적 요구를 지켜나가는 실천의 모습이길 기대해본다.

발언대

25돌 불교방송에 바란다

BBS불교방송이 5월 1일로 개국 25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불교 전문 방송국으로 현재까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사부대중에게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편집자주>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 시급



자승 스님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장

불교방송이 25주년을 맞았다. 종교 방송이 25년간 이어져왔다는 것은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BBS 불교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23년간 진행한 바 있어 불교방송의 25주년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현재 불교방송은 개국 당시 고부되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재는 여러 가지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어린이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어린이를 위해 진행되었던 행사들도 축소되는 현상은 안타깝기만 하다.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불교방송을 듣는 어린이가 미래의 불자가 되고 미래의 청취자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도 불교방송의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불교방송 직원들이 신심을 갖고 땀땀 뭉쳐 불교 자체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낸다면 불교방송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계 매스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올려피지게 하는 신심 나는 콘텐츠만 개발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불교방송이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좋은 방송을 전해 성장한다면 사찰의 도움을 받는 방송이 아니라 사찰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삼보를 지키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

콘텐츠 개발·인력 양성 힘쓰길



김정철
중앙승가대 교수

BBS불교방송이 개국한지 올해로 25주년을 맞는다. 이미 기독교계는 해방 직후부터 CBS, CTS, 극동방송을 시작해 방송 선교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불교방송이 1990년 개국한 것은 한국 현대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25년동안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불멸 흥포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해온 것에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경쟁 체제로 넘어갔고, 불교방송도 시대 변화에 맞춘 변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불교방송은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출범시킨 TV 내에 프로그램을 봐도 BTN불교TV와의 차별

성을 찾을 수 없다.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불교방송이 그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력을 계속 재활용하거나 기존 스님들을 이용하는 틀을 못 벗어날 수 있다. 전문 인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케이블 방송국 TVN의 경우 나영석PD 등 걸출한 인물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당장 시청률 고공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줬으면 한다. 결국은 사찰 내 신도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는데 사찰과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사찰에서 신도들이 적극 나서서 방송을 만들고 참여를 하면 재정적 지원도 함께 따르게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국: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가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동명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x 세로 32cm x 높이(뒤틀림) 8cm]
www.hyunbulshop.com